



2006년 진흥사업 및 모니터링 평가

04

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 : 경기문화비전 2007
2.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3.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2006년 진흥사업 및 모니터링 평가

1.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근거 : 경기문화비전 2007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의 평가 근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표된 경기문화비전에 수록되어 있는 경기도의 문화발전전략과 경기도의 문화적 상황이다. 평가 근거의 확정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무엇을 평가근거로 삼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거나 혹은 상호 충돌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이 2007년 발표한 '경기문화비전 2007'을 경기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최고 정책목표라고 판단하고,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경기문화비전이 밝히고 있는 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위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경기문화비전'이 정책목표를 알려준다면, 2007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문화지표 조사연구와 문화향수실태조사는 경기도의 문화적 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감안해 이 조사의 결과를 경기문화비전 2007과 비교하여 현실과 정책목표 사이를 비교하고자 했다.

경기문화비전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비전은 새로운 사회문화환경의 등장으로 인한 도전을 물리치고, 미래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경기문화비전이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문화적 양극화 해소, 예술의 국제적 추세 흡입, 다문화사회화 대응,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문화프로그램의 수요 증가 등이다. 경기문화비전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 전통의 계승과 현대화 (2) 문화예술 창조력 신장 (3) 문화창조산업 육성 (4)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복지 확대 (5) 광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역점 추진과제를 밝히고 있다.



그림 8 경기문화비전



경기문화비전이 경기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가 위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2007년도에 실시된 경기도 문화지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문화적 상황은 이렇다.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요한 위치는 문화예술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 7.2%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는 세간의 선입견과는 달리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중요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부분에 있어서는 타시군 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예회관의 14.7%는 경기도에 있으며 문예회관은 경기도의 인구 비중(22.4%)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도시공원 부분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공원의 19.6%가 경기도에 있다(표17 참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경기도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시군구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현황	서울	62	113	13	29
	6개광역시	82	57	26	18
	경기도	80	98	22	18
	기타전국도	302	189	89	94
1개 기관 당 담당 인구	서울	166,081	91,124	792,077	355,069
	6개광역시	124,883	179,656	393,862	568,912
	경기도	133,715	109,155	486,237	594,290
	기타전국도	46,755	74,709	158,652	150,213

표 16 문화시설현황비교 (2007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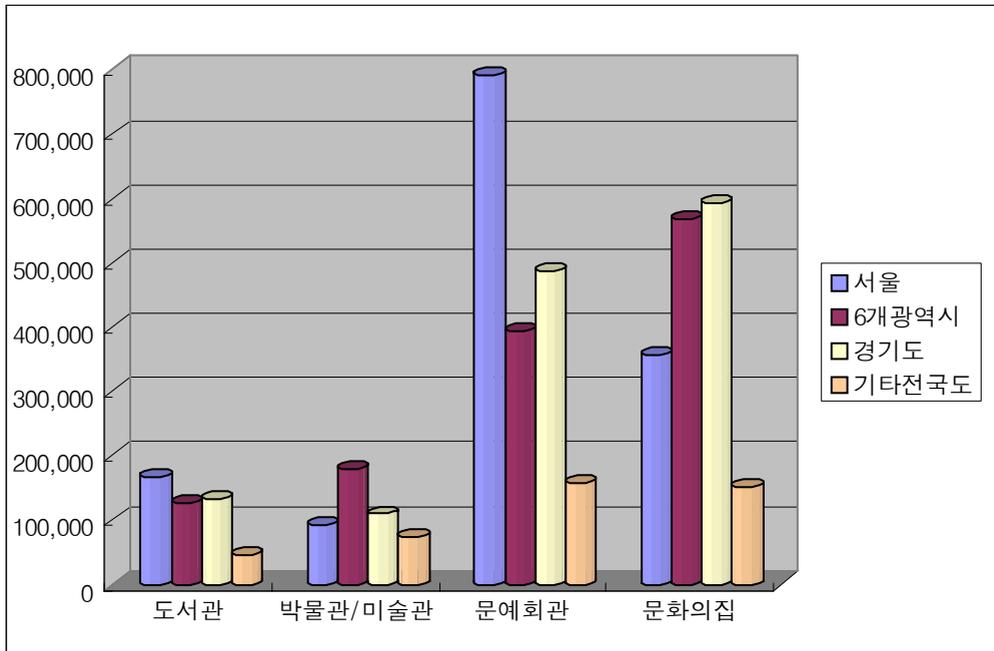


그림 9 문화시설현황비교 (2007 경기도 문화지표조사)

지표항목	경기도	전국	비중(%)
국가지정 문화재 수(07)	217개	3,013개	7.2
문예회관 수(05)	22개	150개	14.7
공공도서관 수(06)	98개관	561개관	17.5
도시공원조성(05)	5,904만m2	3억126만m2	19.6

표 17 문화관련 경기도 주요 지표

경기도에서 기타 문화기반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구비되고 있다. 문화기반 시설 중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공연시설이다. 1997년 7개에 불과했던 종합공연장은 2005년 무려 49개로 늘어났으며, 영화관 역시 1997년의 105개에서 2005년에는 326개로 늘어났다. 그 결과 경기도는 타시군부와 비교할 때 문화기반시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지표상으로 경기도는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예술단체 수, 공연행사 수, 지역 축제 수의 면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격	공연시설			전시		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종합 공연장	일반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1997	7	15	105	9	18	27	89		30	1	4
2001	11	22	142	21	12	24	138	13	31	1	6
2005	49	23	326	25	6	22	114	18	32	2	10

표 18 경기도 문화시설 현황추이 (2001, 2005 경기도 통계연보를 토대로 재구성)

지 표	순 위	비 고
문화기반시설 수	1위	
문화예술단체 수	2위	서울 1위
문화예술인 수	8위	광역시 중 1위
공연행사 수	3위	
전시행사 수	6위	
지역축제 수	2위	서울 1위

표 19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행사 순위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및 문예연감)

하지만 문화시설 이용도의 측면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 문화시설방문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 횟수,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등에서 매우 저조한 전국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도내에서의 문화향유 실태는 저조하나 타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항 목	순 위	비 고
도내 문화시설 방문횟수	14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횟수	13위	
도내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13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율	15위	최하위
도내 지역축제 참여의향	12위	
문화예술행사 관람회수	3위	-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관람

표 20 문화향수 실태 관련 순위 (2007 문화향수실태조사)

지표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의 문화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문화기반시설 인프라를 갖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인프라의 활용도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둘째, 경기도 내 문화기반시설은 시군부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모든 유형의 문화기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과천시, 양평군, 가평군), 박물관/미술관 위주로 편향되어 있는 지역(여주군, 안성시 등), 문예회관/문화의 집 위주형(수원, 안산, 고양 등 대다수), 도서관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역(동두천, 평택 등) 등으로 경기도 지역내 지역별 편차는 상당히 심한 편이다.

경기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비록 도내 지역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는 타시도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뛰어난 문화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이런 의미에서 잘 구축된 문화기반시설과 취약한 문화향수 실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수년간 문화기반시설의 구축 면에서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팽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장은 필요하고 타당한 일이다. 문화기반시설은 그 특성상 문화예술의 소통과 문화예술이 확산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의 확장에 걸 맞는 문화향수의 증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기



도의 문화환경 및 문화자원이 우수하지만 활용실태는 저조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내 문화자원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조한 활용실태는 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에서 제공되는 문화예술 창작물의 질적 수준과도 관련 있다. 경기도의 특성상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따라서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문화예술창작물은 경기도민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

또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에서 오는 딜레마가 있다. 경기도는 행정구역상으로 독립성을 갖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광역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타도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경기도 내부의 지역적 특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구비정도와 활용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공모지원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모지원의 원칙이 결정되고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공모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행 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본 보고서는 공모지원 사업의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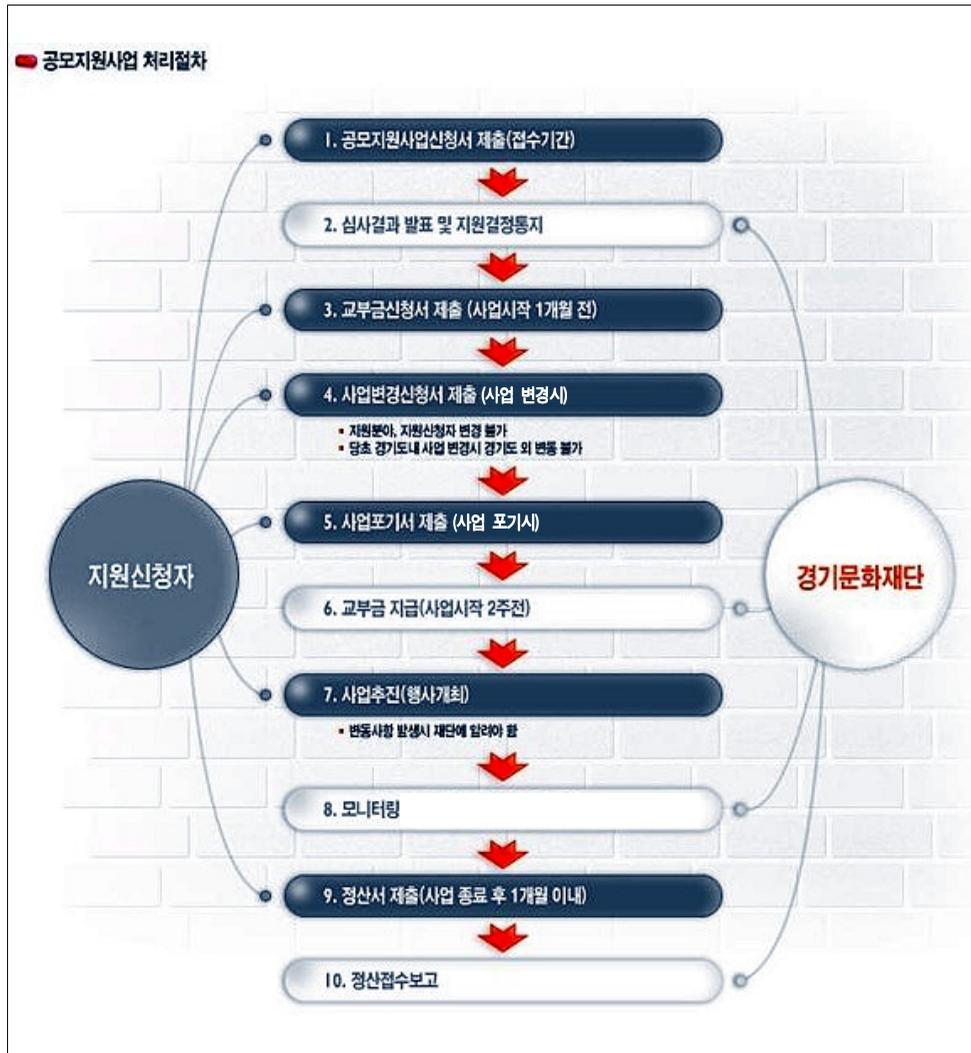


그림 10 공모지원사업 처리절차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신청주체 구분의 적절성, 지원분야 구분의 적절성, 지원예산배분의 적절성, 지원신청 영역 분류의 적절성, 지원선정 심사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공모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가 얼마나 신뢰도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2. 1 신청주체 구분의 적절성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주체의 적절성은 본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청 주체의 범위의 설정 기준에 따라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개인과 집단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의 신청자격을 협의의 문화예술인(단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매개자 및 향유자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민을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향유자(단체)로 구별하고 명명하는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비예술인/비매개자를 향유자로 명명하는 것은 직업 문화 예술인이 아닌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향유’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민들의 문화 활동을 ‘향유’로 국한시키는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는 분류법이라 생각된다. 비문화예술인을 향유자로 명명하고 이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다소 수동적인 활동영역을 배분하는 사유방식은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을 배분하는 데에서도 다소 문제를 발생시킨다.

현재의 지원방식에 따르면 예술인(단체)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확대 카테고리의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향유자는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에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매개자(단체)는 지원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가능하여, 지원 가능한 주체 간의 극단적인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공공 실험 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예술인, 매개자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육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아미추어 문화예술활동	매개자, 향유자
소수자 문화예술활동향유기회증진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문화예술인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진흥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	예술인, 매개자
문화예술정보화 활동	예술인, 매개자

표 21 2006년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

만약 각 주체의 외연과 내포가 정밀하다면, 즉 해당 주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각 주체간 신청지역의 비대칭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주체에 해당되는 개인 및 단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현재 찾아볼 수 있는 각 주체에 대한 정의로는 ‘경기문화재단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신청안내공고’ 를 참조해볼 수 있다. 이 안내 공고에 따르면 예술인(단체)은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이수자 또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3년 이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예술가(단체)” 로 정의되어 있다. 매우 포괄적인 정의처럼 보이지만, 이 정의에서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예: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추상성은 매개자(단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매개자(단체)는 “비영리로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매개하는 예술가(단체)” 로 정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신장, 교류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 운영자, 도민의 문화적 삶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나 단체, 문화예술활동을 기획하거나 보급하는 인사나 단체, 문화예술관련 전문연구자” 등이 매개자(단체)의 예시에 해당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술인(단체)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났던 추상성은 매개자(단체)에 대한 정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매개자에 대한 정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내가 매개자다” 라고 주장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다. 반면 향유자(단체)는 “경기도민” 으로 정의되어 있어 아주 분명하다.

신청주체를 문화예술인, 매개자, 향유자로 구분하는 것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감안 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예술가/비예술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전통적 의미의 비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의 신청주체 구분 방식은 문화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2. 2 지원분야 구분의 적절성

현재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를 모두 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범주는 전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공공·실험예술활동,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문화예술 교육활동,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 활동,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범주를 구획하는 기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지원분야에는 목적성이 분명한 지원분야와 문화예술활동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혼재되어 있다.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등은 이른바 정책의 목표가 분명한 목적성 지원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면, 목적성 지원분야 이외의 일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분야간 배타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몇 가지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중첩된다. 예를 들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과 공공 실험 예술활동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은 범주 구별이다. 이는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은 활동의 주체인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공공 실험 예술활동이 별도의 범주로 설정된 이유는 공공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창작을 지원한다는 목적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활동주체에 따른 분류와 목적에 따른 분류가 혼재되어 있기에 지원분야 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과 2) 공공 실험 예술활동은 상호 중첩된다. 예를 들어 전문예술인이 실험적이거나 공공적 예술활동을 위해 지원할 경우 지원분야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분류의 문제는 문화예술인 연수활동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만약 문화예술인 연수활동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원분야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지원분야 획정에서 활동 주체라는 기준과 활동의 목적이라는 기준이 모두 사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원분야 분류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2. 3 지원예산 배분의 적절성

2006년 지원사업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예산이 배분된 영역은 13억9천만원이 배정된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이며, 문화예술 정보화 활동에 4천만원으로 가장 최소치가 배분되었다. 지원예산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극단적인 배분 형태가 나타난다. 전체 예산의 58.14%가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에 배분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역시 15.51%에 불과하다. 기타 분야는 거의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대비 지원률	지원금 (단위:천원)	건당평균 지원액	전체비중 (%)
분야1.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32.31	1,349,000	6,104	58.14
분야2.공공·실험 예술활동	27.78	114,500	7,633	4.93
분야3.문화예술인 연수활동	68.75	64,000	5,818	2.75
분야4.문화예술 교육활동	26.92	124,000	3,543	5.34
분야5. 아마추어 문화 예술활동	43.41	360,000	3,214	15.51
분야6.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증진활동	26.19	96,500	4,386	4.15
분야7.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16.67	120,000	8,571	5.17
분야8.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	41.94	78,000	6,000	3.36
분야9.문화예술정보화활동	30.77	14,000	3,500	0.6
계(평균)	33.01	2,320,000	5,190	

표 22 2006년 모니터링 대상사업 예산분배현황

지원액을 목적성 분야와 활동주체별 분야로 나누어 보면 전체 예산의 대다수는 목적성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활동주체에게 배분되었다. 목적성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2 공공·실험 예술활동, 분야6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증진활동, 분야7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분야9 문화예술 정보화활동에는 전체 지원 예산 중 14.85%가 지원되었고 활동주체 분야인 분야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분야3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분야4 문화예술 교육활동, 분야5 아마추어 문화 예술활동, 분야8 문화예술 조사, 연구, 평론활동에는 전체 예산의 85.15%가 배분되어 있다.

활동주체에 대한 지원과 활동목적에 대한 지원은 모두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지나친 비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문화비전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별 지원 대비 목적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2. 4 지원신청 영역 분류의 적절성

현재 지원신청영역은 아주 세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크게 문학, 출판간행, 교육훈련,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문화예술, 문화예술일반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범주별로 하위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다. 지원신청 영역은 전통적인 장르별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르간 경계를 과장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 구별은 예술의 탈장르화가 가속화되고 이종결합(convergence) 현상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영역을 전통적인 예술의 장르 구별에 따라 고집할 필요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구분	지원영역	
문학	시·시조, 소설, 희곡, 동화, 수필, 기타	
출판간행	연구, 평론, 논문, 보고서, 매뉴얼, 교재, 기타	
교육훈련	예술교육, 예술인워크숍, 예술인세미나, 교사교육, 강좌, 기타	
공연 예술	음악	오페라, 기악, 성악, 음악극, 기타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기타
	연극	창작극, 번역(안)극, 마임, 뮤지컬, 인형극, 기타
시각예술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설치, 공예, 디자인, 건축, 행위예술, 디지털 영상예술, 기타	
전통 문화 예술	음악	기악(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성악(판소리 가곡 가시 시조 민요), 풍물 사물놀이, 기타
	무용	전통 무용 춤, 기타
	연극	국극(창극 민요극), 민속 의례, 기타
	미술	전통회화, 서예, 전통공예, 기타
문화예술일반	문화정책, 대중문화, 생활문화, 지역(향토)문화, 정보화, 기타	

표 23 현재 지원신청 영역분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르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실 전통적인 예술세계 내에서도 문화예술의 장르 구별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명확한 장르 구별을 창작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르 분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장르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면, 오히려 장르 구별 때문에 지원자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장르 구별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장르 구별은 지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특정 장르로 환원될 수 없는 현대 예술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 이라 할 수 있다. 장르 구별의 ‘관행’ 으로부터의 과감한 전환과 탈피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르 구별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장르간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 공모지원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장르별 안배라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 5 지원선정 심사 기준의 적절성

현재 지원사업은 행정심사단, 사업 및 인터뷰 심사단, 시민참관단 등으로 구별되어 있어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 및 인터뷰 심사단은 “지원분야의 사업유형 및 지원영역(장르)을 고려하여 지역성, 현장성을 충분히 파악 가능한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 하며 “심사영역별로 지역인사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심사 절차를 살펴보면 1차 심사(30% 반영)에서는 사업목표, 범위, 대상, 자격, 예산 등의 항목을 행정적으로 심의하고, 2차 심사(70% 반영)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심사 내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항목		심사내용
1	문화 예술적 우수성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사업의 내용에 참신성 창의성 독창성이 있는가?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2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정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3	기대효과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도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4	추진능력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관계)를 얻고 있는가?

표 24 2차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심사 배점항목은 각 심사분야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심사 항목 1의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은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즉 지원의 목적을 문화예술적 수월성 제고에 둘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환경 창출을 통해 도내 문화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따라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누가 평가하느냐, 즉 평가자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따라서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의 과학화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는가의 여부이다. 전문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심사위원 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전문심사위원을 장르별 안배 원칙에 따라 선정하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3.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3.1 분석 방법 개관

(1) 분석에 포함된 평가 지표 개관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현장 참여 관찰 지표와 모니터링 평가 텍스트 자료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의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 지표 자료와 주관적/질적 자료로 양분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자료에 추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행정 평가 지표이다(아래 참조). 행정 평가 지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 담당자가 사업규모의 일관성, 자부담율의 일관성, 지원금 요청 항목의 일관성, 정산서 제출 시기,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의 행정적 진행의 충실성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된 총괄 평가의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정 평가 역시 지원된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중요 요소이므로 이를 객관적 지표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		장 소	
사업명		총사업비(원)	
사업기간		지원비(원)	

표 25 행정평가의 사업개요 - 실제 사업이 진행된 장소와 기간을 표시



항목	지표	배점	총점
O-1 사업규모 (4)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변경 없음	4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30% 이내 변경	3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30-60% 변경	2	
	사업규모(장소의 규모와 성격, 사업기간, 일정, 횟수) 60% 이상 변경 혹은 장소의 규모와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변경	1	
	교부신청서와 정산서의 사업규모 불일치	0	
O-2 자부담율(8) -신청서와 정산서 비교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변경없음	8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10% 이내 감소	6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40% 이내 감소	4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60% 이내 감소	2	
	외부협찬을 포함한 자부담 비율 60% 이상 감소	0	
O-3 지원금 요청 항목 (6) -교부신청서와 정산서	변경 없음	6	
	항목변경 50% 이내	4	
	항목변경 50% 이상	2	
	모든 항목이 경상비로 변경됨	0	
O-4 정산서 제출시기 (4)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4	
	사업 종료 후 2-6개월 이내	2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후	0	
O-5 총괄평가 (8) - 정산서의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사업의 변경타당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충실	8	
	사업의 변경 타당성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나 혹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함	6	
	결과보고서의 요구자료는 모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은 확인 어려움	4	
	결과보고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혹은 변경타당성 없음	2	
	결과보고서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며 내용이 모니터링 결과와 다름	0	
계 (30)			
검토의견			

표 26 행정평가지표 - 지원사업신청서, 교부신청서, 정산서 비교 검토



따라서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에 사용된 모니터링 자료 및 기타 평가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객관적 지표

- i. 현장 참여 관찰 지표 분석: 6개 개별 분야의 특성에 따라 구성 (10개 내외의 지표 사용)
- ii. 행정 평가지표: 6개 전분야

B. 주관적 / 질적 지표

- i. 모니터링 수행자의 검토의견 텍스트 자료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 차이를 분석하였다.

(2) 분석의 방향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분석

: 개별 분야에서 해당 요인분석을 통해 항목-개별지표가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분석한다.

B) 현장 참여 관찰 지표와 행정평가지표의 연관성 분석한다.

C)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3) 분석 방법 소개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 i. 요인분석이란, 데이터의 양을 줄여 정보를 요약하고 변인들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따라서, 중요도가 낮은 변인을 제거하는 과정도 병행하여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확인(타당화)한다. 이를 위해 다변인의 요인 구조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전(rotation) 요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 ii. 요인분석의 주요 과정: 전체 세부 지표를 개별 지표간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몇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가를 시각화한다.
- iii. 요인 분석 후 도출된 요인이 사전에 설정된 항목 분류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고 일부 불일치 발생 시 평가 지표의 재구성을 도모한다.
- iv.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분석: 도출된 요인이 하나의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B. 상관분석

: 도출된 요인 점수와 행정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지표간 연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행한 행정평가 내용이 모니터링 수행자의 평가를 어떤 분야에서 잘 예측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 모니터링 질적 자료 분석

: LIWC라는 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모니터링 자료의 질적 분석을 도모한다. LIWC 프로그램의 소개는 이후 해당 분야에 상술되어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질적 자료의 분석은 전문가 대 시민모니터링 요원의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객관적 자료에서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3. 2 객관적 지표 분석

- 객관적 지표의 분석은 분야별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사례수(3)가 너무 적어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독자의 편의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3장에서 소개된 2006년 모니터링 평가지표 6개 분야를 A~F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들을 소개된 순서대로 A1, A2와 같은 방식으로 정렬하여 참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아래 내용 중 신뢰도(Cronbach' s Alpha) 계수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0.6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하며, 개별 지수의 해석은 괄호안에 덧붙여 이해를 도모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신뢰도 계수란 여러 개의 세부 지표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단일 점수화 하였을 때, 이 단일 점수가 신뢰로운 것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뢰도 계수이다.

-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상관(correlation) 계수는 두 변인 혹은 지표의 연관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관계수(일반적으로 “r =” 로 표시)는 - 1.0 ~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양수일수록 정적인 연관성 음수일수록 부정적 연관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0은 연관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등 복잡한 변인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서 .2를 초과하는(혹은 -.2보다 낮은) 상관계수는 두 변인 혹은 지표 간 의미있는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 계수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혹은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의 기호를 통해 표시한다.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할수록 그 상관계수를 더욱 신뢰로운 것으로 해석한다.

(1)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예술성(3개 지표, 30점) / 기대효과(4개 지표, 1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지표, 10)



B.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A.06	.863	.060
A.04	.858	.236
A.05	.823	.185
A.08	.762	.373
A.07	.708	.388
A.11	.684	.559
A.10	.643	.434
A.09	-.001	.831
A.02	.299	.776
A.01	.493	.651
A.03	.301	.574

표 27 회전된 성분행렬(a)

- i. 요인 해석 : 예술성과 기대효과 항목은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되고 A-9의 도민의 문화에
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표는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 항목과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하
여 재배치하고 최종 지표 점수를 이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결과 해석
 - ① 요인 1 : 예술성 및 가치
 - ② 요인 2 : 효과성
 - ③ 모든 문항이 2개의 요인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3개의 항목이 아닌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879 (매우 신뢰)
 - ② 요인 2: .778(상당히 신뢰)
 - ③ 요인 1과 2의 신뢰도 점수가 매우 높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2개 요인은 5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해당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가 관람 후 지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과 현장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2)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예술성(3개 지표, 30점) / 기대효과(4개 지표, 1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지표, 10)

B. 요인분석

	요인	
	1	2
B.04	.874	-.081
B.05	.857	.170
B.01	.829	.126
B.11	.828	.195
B.08	.767	.287
B.06	.731	.448
B.10	.722	.469
B.07	.674	.392
B.02	.655	.036
B.09	-.052	.884
B.03	.295	.786

표 28 회전된 성분행렬(a)

- i. 요인 해석 : 전문예술 시각과 공연과 마찬가지로 문항 9와 3은 하나의 요인 (요인 2)으로 그룹화. 일관적으로 9번과 3번 문항이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것은 두 문항간 상관



($r=.53$, $p < .05$)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표 평가자가 예산의 활용도와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강한 연관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됨.

ii. 성과 기대효과 항목은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되고 A-9의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효과 지표는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 항목과 같은 요인으로 그룹화하여 재배치하고 최종 지표 점수를 이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결과 해석

① 요인 1: 예술성 및 가치

② 요인 2: 활용도 및 기대효과

③ 모든 문항이 2개의 요인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에 사용된 세부 지표들은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3개의 항목이 아닌 2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① 요인 1: .884 (매우 신뢰)

② 요인 2: .652(중간수준의 신뢰)

③ 요인 1과 2의 신뢰도 점수가 매우 높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2개 요인은 5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해당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가 관람 후 지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과 행정평가 지표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행정평가와 현장평가의 세부 지표들 간에는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들이 발견되었다.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B-10 ($r = .48^*$)

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B-01 ($r = -.58^*$) / B-05 ($r = -.52^*$)

iii. 결과해석 :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에서 사업규모 변경 정도가 적을수록 향후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금 요청 항목 변경 정도가 작을수록



록 사업목표 실현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통적 기법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기법적 가치에 대한 계승성 혹은 재해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8개 지표: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24점) / 기대효과(4개 지표, 36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B. 요인분석

	요인
	1
C-1	.898
C-8	.869
C-4	.858
C-2	.847
C-5	.821
C-7	.801
C-6	.741
C-3	.679

표 29

- i. 요인 해석: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① 요인 1: .928(매우 신뢰)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도출된 요인은 2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을 보임: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r = .292^*$), 행정평가 지표 5(총괄평가, $r = .304^*$)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C-2 ($r = .34^*$)

ii. 행정평가 지표 2(자부담율 일관성): C-7 ($r = .31^*$)

i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C-1 ($r = .30^*$)

iv. 행정평가 지표 5 (총괄평가): C-1 ($r = .30^*$) / C-4 ($r = .29^*$) / C-8 ($r = .37^{**}$)

v.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지표들과 관람 후 지표간의 유의미한 세부 상관이 다수 도출된 것으로 보아 아마추어 분야는 행정평가와 관람 후 지표간이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연수.교육분야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i. 4개 항목 8개 지표: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프로그램 완성도 (3개 지표, 20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B. 요인분석

	요인
	1
D-1	.928
D-10	.913
D-8	.911
D-6	.877
D-2	.872
D-9	.848
D-7	.845
D-4	.842
D-5	.756
D-3	.600

표 30

- i. 요인 해석 :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945(매우 신뢰)

C. 행정평가 지표 - 요인 간 상관분석

아마추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출된 요인은 동일한 2개 행정평가 지표와 유의미한 개별 상관을 보였다.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r = .46^*$), 행정평가 지표 5(총괄평가, $r = .52^{**}$)



D. 행정평가 지표 - 현장평가 지표 간 상관분석

- i. 행정평가 지표 1(사업규모 일관성): D-2 ($r = .50^*$) / D-4 ($r = .40^{**}$) / D-8 ($r = .48^*$) / D-9 ($r = .55^{**}$) / D-10 ($r = .43^*$)
- ii. 행정평가 지표 3 (지원금요청 항목의 일관성): D-5 ($r = .48^*$)
- iii. 행정평가 지표 4 (정산서 제출시기): D-5 ($r = .47^*$)
- iv. 행정평가 지표 5 (총괄평가): D-1 ($r = .51^{**}$) / D-2 ($r = .46^*$) / D-4 ($r = .47^*$) / D-5 ($r = .66^*$) / D-7 ($r = .39^*$) / D-8 ($r = .47^*$) / D-10 ($r = .41^*$)
- v. 아마추어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행정평가지표들과 관람 후 지표간의 유의미한 세부 상관이 다수 도출되었다. 따라서 행정평가와 현장 평가 지표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산서 제출시기와 같이 특수한 지표 외의 모든 행정지표들은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표를 (D-5)을 매우 잘 예측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

A. 현장 참여 관찰 지표

- i. 4개 항목 8개 지표 : 추진계획 대비 실현정도(3개 지표, 15점) / 프로그램 완성도 (3개 지표, 20점) / 기대효과 (3개 지표, 25점) / 기금지원의 필요성 (1개 문항, 10점)



B. 요인분석

	요인
	1
E-10	.966
E-9	.938
E-2	.923
E-6	.906
E-5	.898
E-3	.876
E-8	.864
E-1	.864
E-7	.823
E-4	.783

표 31

- i. 요인 해석 : 전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보아 평가자들은 추진 계획 대비 실현정도, 기대효과, 기금지원의 필요성 등 모든 항목을 같은 차원에서 평가한 것을 판단된다.
- ii. 요인의 신뢰성(Cronbach' s Alpha 계수)
 - ① 요인 1: .950(매우 신뢰)

C. 행정지표 - 도출 요인간 상관분석과 행정지표

개별 평가 항목 상관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으나 이는 상관분석의 특성상 너무 적은 사례수(평가자 14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및 제언

객관적 자료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속될 모니터링 자료 평가 사업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분석의 결과 모든 분야에서 모니터링 평가자들은 평가에 명시된 4개 항목보다는 작은 수의 요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작한 현장 평가 지표의 구성이 4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자들은 1~2개의 요인, 즉 기준을 가지고 이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가자들이 현장 평가에서 1~2개의 내적 기준에 해당 평가 대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우수하다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지표에 저조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평가자들이 현장평가 지표를 잘못 이해했거나 평가자들이 동일한 지표에 대해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분야별 요인에 기초한 항목의 총점화된 요인들이 높은 신뢰도 계수들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용된 지표가 평가자들로 하여금 평가의 내용 자체를 혼동하거나 개인별로 다르게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사용될 지표 역시 일종의 척도이다. 척도의 개발과 사용에는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과 같은 사전 평가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본 평가 분석 결과는 차후 모니터링 평가에 사용될 지표는 제작 이전에 이러한 작업을 거쳐 보다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야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야별 지표체계는 그 내용을 고려했을 때, 항목 당 배점, 지표의 수와 구성이 분야별로 상이한 것이 개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별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평가 지표 역시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자료로부터 도출된 각 분야 내의 개별 요인 점수는 “표준화”된 점수이므로 분야 “내”에서 요인 우열 비교는 가능할지 모르나 통계적으로 요인의 표준화된 요인 점수의 총합은 항상 “0”이므로 분야 간 비교는 평균 혹은 중간값과 같은 기술 통계값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별 평가 지표의 값들은 분야의 특성에 기초한 기술 통계값들이므로 분야간 비교가 무의



미해지므로 이를 고려한 지표의 제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공연 분야의 현장평가 평균은 52.6점(70점 만점)이고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현장평가 평균은 46.4점(70점 만점)이다. 사례수를 고려했을 때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큰 차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통계 상의 차이가 평가자의 전문가 여부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분야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해당 분야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 때문인가를 본 평가에 포함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 간 직접 비교가 가능한 표준화 가능한 지표가 사전에 설정된 예비 검사 및 제작 단계를 통해 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연수·교육분야는 사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평가 지표와 현장 평가 지표간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한 가지 중요한 평가자 구성 차이에 존재한다. 이후에 언급될 바와 같이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와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분야는 전문가 위주로, 그리고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연수·교육분야는 시민 모니터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 모니터링 위주의 자료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행정평가가 현장 관람 평가의 결과를 상대적으로 잘 예측하는 반면, 오히려 전문가 위주의 현장 관람 평가에서는 행정평가 자료와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분야의 특성과 전문가들만의 독특한 평가 방식과 같은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자료만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이 요구된다.

넷째,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평가자 14명)과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평가자 3명) 등은 너무 적은 사례 수로 인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사업 수 자체가 적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양적 자료의 보강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다수의 평가자를 동일 사업에 배치하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분석에 사용된 모니터링 자료들은 지표의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신뢰도의 검증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신뢰도의 개념은 한 대상을 판단하는 다수의 평가자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는가에 기초한다. 그러나 사업·평가자가 1대 1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현실



태에서는 이러한 신뢰도의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매년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평가와 모니터링을 주기화하여 해당 주기에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평가자를 배치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3. 3 주관적/질적 지표 분석:

전문가 대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에 대한 질적 분석

모니터링 자료 중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는 다음과 같이 개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 차이를 검증하였다.

(1) 모니터링 자료 개관

- A) 6개 분야의 214건의 모니터링 텍스트 자료를 분석했다.
- B. 구성: 105건-비평가 / 109건-시민 모니터링
- C)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중 시각.공연 분야와 전통예술 분야는 전문가 위주, 나머지 분야는 시민모니터링 요원 위주로 구성
- D) 객관적 지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격		전체
		전문가	시민모니터링	
분야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각,공연 분야	86	13	99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전통예술	19	0	19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0	49	49
	전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연수,교육분야	0	30	30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원사업	0	13	13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사업	4	0	4
전체		109	105	214

표 32 분야 - 자격 교차표

앞의 표가 나타내듯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은 개별 분야에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야별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시각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편포는 분야별 비교 자체가 이미 두 집단의 편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계적 해석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분야별 다변량 분석을 통한 차이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분석 프로그램 (LWC 프로그램) 소개

A.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글(또는 말)의 방식과 내용에만 근거하여서 글쓴이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인 변인은 물론 글쓴이의 의도, 성격, 심리상태나 건강상태까지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사람들 간의 대화된 텍스트나 실제 대화의 녹음된 말의 내용과 방식만을 바탕으로도 대화자 간의 인구학적



변인과 관련 심리학적 변인을 알 수 있고 그 대화가 대화자 간에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관련된 실험상황에서 사람의 글이나 말이 의식적인 수준에서도 주요 심리학적 변인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심리학의 주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지 않아 왔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었지만(예: Freud, 1901), 일부 임상, 상담장면에서 언어분석을 통해 진단의 보조도구나 상담의 질을 평가하는 등의 언어와 제한된 관심변인 간의 관련성만을 밝히는 성과가 있었을 뿐 광범위한 심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글을 분석하는 물리적인 단위는 언어 의미의 기본단위인 단어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LIWC(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쓴 글을 72개의 언어 관련 목록의 비율에 따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Pennebaker & King, 1999). 상술한 기존의 글분석 프로그램은 제한된 심리장면(예 : 심리치료)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용단어(Content Word)를 중심으로 언어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단어의 비율이나 욕구 및 성취관련 단어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하여 LIWC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3000여 개의 내용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 단어 변인을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길이, 관사, 전치사, 단어 수 등과 같이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기능 단어 변인과 대명사 관련 변인도 포함하였다(Pennebaker, Francis & Booth, 2001). 이러한 기능 단어들과 대명사 관련 변인은 전체 글의 언어구조(Linguistic Structure)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단어들로써 언어사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다. LIWC는 기능단어들과 대명사 관련 변인을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기존 글분석 프로그램에서는 구별할 수 없었던 임상, 사회, 생리, 인지, 발달과 관련된 심리학의 다양한 개인차 변인들을 추출해 내는 연구결과를 추적해 올 수 있었다.

기능 단어들을 언어학적 변인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글이나 말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심지어 덩이 글과 덩이 글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여 전체 글의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를 만든다. 또한 대명사도 이전 문장이나 덩이 글에서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참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무의식적인 인지적 용량이 필요하다. 반면에 내용단어들은 글이나 말을 사용하면서 의식적으로 사용을 통제할 수 있기에 실험상황에서 설정한 특정 상황, 집단, 대화상대자에 따라 사용의 편차가 없을 수 있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LIWC가 기존의 내용단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분석프로그램과는 달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주요 심리학적 변인들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의 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언어학적 변인과 대명사 관련 변인을 LIWC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한 것이 주효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LIWC를 사용하여 언어사용과 주요 심리학적 변인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언어사용을 심리학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IWC의 방대한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글 분석이 심리학적 변인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LIWC에 근거한 한국어 분석프로그램(K[Korean]-LIWC)이 개발되었다. 현재 K-LIWC를 사용한 글 분석 연구결과들은 다수의 SSCI 및 학술진흥재단 등지에 발표되었고 그 분야 역시,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글 분석 역시 이 K-LIWC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3) 기술통계 분석

A. LIWC 프로그램에서 한 개인의 글 분석에 필요한 최소 문장과 어절이 각각 10 개와 200 개 임을 고려할 때 214명 전원의 모니터링 자료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장	214	11	203	50.15	28.005
어절	214	223	2331	815.55	373.828
유효수 (목록별)	214				

표 33 기술통계량



(4) 전문가 대 시민모니터링 비교

	자격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문장	전문가	109	47.79	17.717	1,697
	시민모니터링	105	52.61	35.613	3,475
어절	전문가	109	875.74	339,039	32,474
	시민모니터링	105	753.07	398,879	38,927
형태소	전문가	109	1639.50	619,964	59,382
	시민모니터링	105	1415.50	711,621	69,447
어절/문장	전문가	109	18,598	3,1625	,3029
	시민모니터링	105	15,434	3,4228	,3340
형태소/문장	전문가	109	34,906	5,9439	,5693
	시민모니터링	105	29,379	6,7169	,6555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전문가	109	3,538	,9248	,0886
	시민모니터링	105	3,791	1,0673	,1042
긍정적인 정서	전문가	109	1,334	,5287	,0506
	시민모니터링	105	1,700	,7127	,0695
긍정적인 느낌	전문가	109	,704	,3684	,0353
	시민모니터링	105	1,021	,4710	,0460
낙천성 또는 활동성	전문가	109	,312	,2445	,0234
	시민모니터링	105	,433	,3176	,0310
부정적인 정서	전문가	109	1,529	,6525	,0625
	시민모니터링	105	1,324	,5321	,0519
불안	전문가	109	,18	,212	,020
	시민모니터링	105	,21	,273	,027
확	전문가	109	,339	,2822	,0270
	시민모니터링	105	,375	,2797	,0273



슬픔 또는 우울	전문가	109	.18	.182	.017
	시민모니터링	105	.19	.182	.018
인지적인 과정	전문가	109	5.77	1,198	.115
	시민모니터링	105	4.12	1,196	.117
원인	전문가	109	.853	.3568	.0342
	시민모니터링	105	.506	.3371	.0329
사고	전문가	109	1.95	.683	.065
	시민모니터링	105	1.37	.623	.061
기대	전문가	109	1.31	.558	.053
	시민모니터링	105	.87	.482	.047
제한	전문가	109	.734	.3353	.0321
	시민모니터링	105	.575	.3637	.0355
추측	전문가	109	1,581	.5408	.0518
	시민모니터링	105	1,170	.5323	.0519
확신	전문가	109	1,495	.4481	.0429
	시민모니터링	105	.970	.5244	.0512
감각&지각적인 과정	전문가	109	2,673	.7093	.0679
	시민모니터링	105	3,208	.9976	.0974
사회적 과정	전문가	109	3,371	.7708	.0738
	시민모니터링	105	4,445	1,2731	.1242
체면	전문가	109	.283	.1875	.0180
	시민모니터링	105	.192	.1567	.0153
의사소통	전문가	109	1,475	.4565	.0437
	시민모니터링	105	1,931	.5589	.0545
타인참조	전문가	109	.571	.3233	.0310
	시민모니터링	105	.510	.3575	.0349
또래(친구)	전문가	109	.187	.1716	.0164
	시민모니터링	105	.221	.2111	.0206
가족	전문가	109	.194	.2140	.0205



	시민모니터링	105	.342	.3774	.0368
인간	전문가	109	.513	.4552	.0436
	시민모니터링	105	.747	.4695	.0458
자기활동	전문가	109	1.647	.7666	.0734
	시민모니터링	105	2.273	1.2988	.1268
학교	전문가	109	1.161	.5852	.0560
	시민모니터링	105	1.601	.9759	.0952
직장 & 일	전문가	109	.485	.3548	.0340
	시민모니터링	105	.545	.6449	.0629
성취	전문가	109	.65	.330	.032
	시민모니터링	105	.69	.386	.038
여기활동	전문가	109	2.355	1.2430	.1191
	시민모니터링	105	2.490	1.2839	.1253
집	전문가	109	.161	.1521	.0146
	시민모니터링	105	.235	.2508	.0245
운동	전문가	109	.218	.4302	.0412
	시민모니터링	105	.180	.3245	.0317
TV & 영화	전문가	109	.514	.6164	.0590
	시민모니터링	105	.599	.7135	.0696
음악	전문가	109	.961	1.2003	.1150
	시민모니터링	105	.647	.9741	.0951
돈 & 재정적 이슈	전문가	109	.291	.3653	.0350
	시민모니터링	105	.379	.2444	.0239
신체적 상태와 기능	전문가	109	1.089	.4800	.0460
	시민모니터링	105	1.358	.5313	.0518
몸 상태와 증상	전문가	109	.869	.4574	.0438
	시민모니터링	105	1.059	.4867	.0475
성 & 성징	전문가	109	.058	.0657	.0063
	시민모니터링	105	.068	.0995	.0097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전문가	109	.271	.1987	.0190
	시민모니터링	105	.277	.2118	.0207
수면 & 꿈	전문가	109	.12	.105	.010
	시민모니터링	105	.14	.147	.014
형이상학적 이슈	전문가	109	.490	.3308	.0317
	시민모니터링	105	.531	.3130	.0305
죽음	전문가	109	.228	.1497	.0143
	시민모니터링	105	.233	.1536	.0150
종교	전문가	109	.24	.310	.030
	시민모니터링	105	.22	.241	.024
속어	전문가	109	.09	.115	.011
	시민모니터링	105	.16	.266	.026
맹세어절	전문가	109	.09	.109	.010
	시민모니터링	105	.11	.194	.019
어눌한 말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문장	전문가	109	47.79	17,717	1,697
	시민모니터링	105	52.61	35,613	3,475
어절	전문가	109	875.74	339,039	32,474
	시민모니터링	105	753.07	398,879	38,927
형태소	전문가	109	1639.50	619,964	59,382
	시민모니터링	105	1415.50	711,621	69,447
어절/문장	전문가	109	18,598	3,1625	.3029
	시민모니터링	105	15,434	3,4228	.3340
형태소/문장	전문가	109	34,906	5,9439	.5693
	시민모니터링	105	29,379	6,7169	.6555
일반명사	전문가	109	26,310	2,2366	.2142



	시민모니터링	105	25,182	2,7198	.2654
고유명사	전문가	109	2,111	1,5900	.1523
	시민모니터링	105	2,098	1,1761	.1148
일반-고유명사	전문가	109	.221	.1846	.0177
	시민모니터링	105	.242	.1640	.0160
의존명사	전문가	109	.737	.2801	.0268
	시민모니터링	105	.769	.3699	.0361
지시대명사	전문가	109	.68	.311	.030
	시민모니터링	105	.37	.251	.024
인칭대명사	전문가	109	.692	.3752	.0359
	시민모니터링	105	.570	.3519	.0343
1인칭	전문가	109	.049	.0753	.0072
	시민모니터링	105	.064	.0786	.0077
2인칭	전문가	109	.01	.040	.004
	시민모니터링	105	.00	.017	.002
3인칭	전문가	109	.408	.2763	.0265
	시민모니터링	105	.245	.2349	.0229
1인칭복수	전문가	109	.089	.1293	.0124
	시민모니터링	105	.088	.1261	.0123
2인칭복수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3인칭복수	전문가	109	.02	.046	.004
	시민모니터링	105	.02	.044	.004
양수사	전문가	109	.22	.205	.020
	시민모니터링	105	.30	.299	.029
서수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조사	전문가	109	17,938	1,2152	.1164
	시민모니터링	105	17,201	1,7480	.1706
인용조사	전문가	109	.203	.1613	.0154
	시민모니터링	105	.338	.2272	.0222
이다조사	전문가	109	1,902	.5541	.0531
	시민모니터링	105	1,070	.4466	.0436
동사	전문가	109	7,986	1,1528	.1104
	시민모니터링	105	9,430	1,5992	.1561
일반동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자동사	전문가	109	.03	.054	.005
	시민모니터링	105	.04	.077	.008
형용사	전문가	109	2,452	.6306	.0604
	시민모니터링	105	2,472	.7326	.0715
관형사	전문가	109	.347	.2930	.0281
	시민모니터링	105	.205	.1751	.0171
수관형사	전문가	109	.593	.3584	.0343
	시민모니터링	105	1,074	.5437	.0531
일반부사	전문가	109	2,226	.5687	.0545
	시민모니터링	105	2,120	.6770	.0661
감탄사	전문가	109	.143	.1158	.0111
	시민모니터링	105	.114	.1172	.0114
접두사	전문가	109	.06	.088	.008
	시민모니터링	105	.06	.084	.008
접미사	전문가	109	.02	.050	.005
	시민모니터링	105	.04	.074	.007
어미	전문가	109	17,081	1,4581	.1397



	시민모니터링	105	16,777	1,6897	.1649
선어말어미	전문가	109	1,472	.8558	.0820
	시민모니터링	105	2,979	1,1026	.1076
한자	전문가	109	.10	.230	.022
	시민모니터링	105	.02	.060	.006
영어	전문가	109	.17	.290	.028
	시민모니터링	105	.10	.177	.017
명사추정외래어	전문가	109	1,083	.7647	.0732
	시민모니터링	105	1,007	.6559	.0640
명사추정범주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속담, 관용구, 경구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순접관계	전문가	109	.00	.000(a)	.000
	시민모니터링	105	.00	.000(a)	.000
역접관계	전문가	109	1.50	1,561	.150
	시민모니터링	105	.38	.965	.094
인과관계	전문가	109	.30	.601	.058
	시민모니터링	105	.07	.347	.034
대등병렬관계	전문가	109	1.09	1,424	.136
	시민모니터링	105	.69	1,375	.134
첨가보충관계	전문가	109	.34	.841	.081
	시민모니터링	105	.12	.359	.035
확언요약관계	전문가	109	.76	1,154	.111
	시민모니터링	105	.07	.251	.024
전환	전문가	109	.21	.528	.051
	시민모니터링	105	.03	.167	.016



예시	전문가	109	.08	.308	.030
	시민모니터링	105	.02	.137	.013

표 34 집단 통계량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1,261	212	.20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46	151,225	.215
어절	등분산이 가정됨	2,427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20	203,988	.016
형태소	등분산이 가정됨	2,458	212	.01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51	205,756	.015
어절/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7,02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016	209,168	.000
형태소/문장	등분산이 가정됨	6,38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65	206,778	.000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1,861	212	.0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56	205,388	.065
긍정적인 정서	등분산이 가정됨	-4,27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55	191,630	.000
긍정적인 느낌	등분산이 가정됨	-5,50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475	196,859	.000
낙천성 또는 활동성	등분산이 가정됨	-3,140	212	.00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125	195,309	.002
부정적인 정서	등분산이 가정됨	2,520	212	.01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29	206,426	.012
불안	등분산이 가정됨	-.838	212	.40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34	196,366	.405
화	등분산이 가정됨	-955	212	.34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56	211,824	.340
슬픔 또는 우울	등분산이 가정됨	-281	212	.77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81	211,672	.779
인지적인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10,08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088	211,728	.000
원인	등분산이 가정됨	7,31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325	211,920	.000
사고	등분산이 가정됨	6,43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442	211,359	.000
기대	등분산이 가정됨	6,22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237	209,521	.000
제한	등분산이 가정됨	3,321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16	209,069	.001
추측	등분산이 가정됨	5,60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605	211,901	.000
확신	등분산이 가정됨	7,89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73	204,383	.000
감각&지각적인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4,52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500	187,205	.000
사회적 과정	등분산이 가정됨	-7,49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432	170,004	.000
체면	등분산이 가정됨	3,81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23	207,896	.000
의사소통	등분산이 가정됨	-6,55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526	200,769	.000
타인참조	등분산이 가정됨	1,313	212	.1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10	208,059	.192
또래(친구)	등분산이 가정됨	-1,287	212	.19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82	200,393	.201
가족	등분산이 가정됨	-3,553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19	163,300	.001
인간	등분산이 가정됨	-3,699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697	211,015	.000
자기활동	등분산이 가정됨	-4,31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77	167,365	.000
학교	등분산이 가정됨	-4,02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985	168,992	.000
직장 & 일	등분산이 가정됨	-.839	212	.40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31	160,357	.407
성취	등분산이 가정됨	-.948	212	.34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45	204,359	.346
여가활동	등분산이 가정됨	-.784	212	.43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4	210,970	.434
집	등분산이 가정됨	-2,613	212	.01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90	170,187	.010
운동	등분산이 가정됨	.734	212	.4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38	200,585	.461
TV & 영화	등분산이 가정됨	-.937	212	.35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34	205,166	.351
음악	등분산이 가정됨	2,096	212	.0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04	206,111	.037
돈 & 재정적이슈	등분산이 가정됨	-2,068	212	.04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83	189,272	.039
신체적 상태와 기능	등분산이 가정됨	-3,89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83	208,012	.000
몸 상태와 증상	등분산이 가정됨	-2,948	212	.00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944	209,922	.004
성 & 성징	등분산이 가정됨	-.855	212	.39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49	179,205	.397
식사 & 음주 & 다이어트	등분산이 가정됨	-.232	212	.81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1	209,860	.817
수면 & 꿈	등분산이 가정됨	-1,679	212	.09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668	187,552	.097
형이상학적 이슈	등분산이 가정됨	-.942	212	.34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943	211,932	.347
죽음	등분산이 가정됨	-.236	212	.81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6	211,165	.814
종교	등분산이 가정됨	.436	212	.66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38	203,188	.662
속어	등분산이 가정됨	-2,449	212	.01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17	140,409	.017
맹세어절	등분산이 가정됨	-1,132	212	.25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21	162,199	.264
일반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3,320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308	201,350	.001
고유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067	212	.94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68	198,893	.946
일반-고유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870	212	.38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72	210,622	.384
의존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712	212	.47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09	193,722	.479
지시대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8,02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052	205,728	.000
인칭대명사	등분산이 가정됨	2,437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40	211,851	.016
1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1,444	212	.15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42	210,637	.151
2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621	212	.5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0	145,057	.530
3인칭	등분산이 가정됨	4,65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670	208,811	.000
1인칭복수	등분산이 가정됨	.079	212	.9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79	211,968	.937
3인칭복수	등분산이 가정됨	1,089	212	.27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090	211,964	.277
양수사	등분산이 가정됨	-2,047	212	.04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33	183,244	.043
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3,591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67	184,803	.000
인용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5,040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009	187,040	.000
이다조사	등분산이 가정됨	12,05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106	205,647	.000
동사	등분산이 가정됨	-7,595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550	188,661	.000
자동사	등분산이 가정됨	-1,496	212	.13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86	184,752	.139
형용사	등분산이 가정됨	-.215	212	.83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5	204,924	.830
관형사	등분산이 가정됨	4,28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323	177,564	.000
수관형사	등분산이 가정됨	-7,678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621	179,084	.000
일반부사	등분산이 가정됨	1,238	212	.21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234	203,079	.219
감탄사	등분산이 가정됨	1,810	212	.07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810	211,473	.072
접두사	등분산이 가정됨	.035	212	.97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035	212,000	.972
접미사	등분산이 가정됨	-2,299	212	.02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283	181,611	.024
어미	등분산이 가정됨	1,409	212	.16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405	205,091	.162
선어말어미	등분산이 가정됨	-11,196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1,144	196,130	.000
한자	등분산이 가정됨	3,777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840	122,964	.000
영어	등분산이 가정됨	2,083	212	.03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01	179,908	.037
명사추정의외래어	등분산이 가정됨	.778	212	.437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80	209,228	.436
역접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6,25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307	181,030	.000
인과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3,502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535	174,083	.001
대등병렬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2,120	212	.0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122	211,999	.035
첨가보충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2,423	212	.0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454	147,191	.015
확인요약관계	등분산이 가정됨	6,034	212	.00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138	118,543	.000
전환	등분산이 가정됨	3,379	212	.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3,431	130,214	.001
예시	등분산이 가정됨	1,935	212	.05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959	150,487	.052

표 35 독립표본 검정

A. 분석 개관

클 분석 자료에 대한 LIWC 프로그램 분석 결과의 해석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대 시민 모니터링 요원간의 비교 분석은 개별 LIWC 변인에 대한 독립 t-검증을 통해 실시되었다. 집단통계량은 개별 요인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 기초 기술통계량을 기술한 것이고 독립표본 검증은 개별 변인에 있어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이다.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나 가정되지 않은 경우 모두 일관적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료는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은 수일 경우 두 집단간에 나타나는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05보다 작은 유의수준을 보이는 LIWC 변인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은 매우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모두 기술하는 것은 분석 내용의 이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므로 LIWC의 두 기본 범주인 심리적 범주와 언어적 범주에 기초하여 그 결과를 기술한다.

t검증값은 전문가 집단의 수치에서 시민모니터링 집단의 수치를 뺀 것에 기초하므로 t 검증값이 양수이며 유의수준이 낮아 유의미한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이 해당 LIWC 변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임을 의미하며, t 검증값이 음수이며 유의미한 경우에는 비전문가 집단이 해당 LIWC 변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B. 심리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서 가장 큰 차이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상대적으로 전문가 집단보다 시민 모니터링 집단은 긍정적인 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는 전문가 집단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의미있는 차이는 인지적인 과정 변인이다. 인지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 집단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감각과 지각적인 과정에 기초해 모니터링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가족, 인간, 자기활동, 집, 신체적 상태와 기능 등 평가자 자신과 관련된 LIWC 변인에 대해 비전문가 집단이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전문가 집단은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문가 집단은 자신을 하나의 문화 예술활동의 대상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C. 언어적 변인

언어적 변인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전문가 집단이 명사 위주의 모니터링을, 그리고 비전문가 집단이 동사 위주의 모니터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명사 위주의 대상 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위주로 하며 동사 위주의 대상 묘사는 그 대상의 특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이며 인지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이를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위주로 사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차이는 확언 요약관계, 전환, 역접과 같은 관계사 용어의 사용과 “이다” 조사와 같은 확언적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인지적 과정의 사용과 연관이 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전문가 집단은 명사 위주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통해 확언적이고 단정적인 모니터링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5) 결론 및 제언

모니터링 텍스트 자료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LIWC 변인들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석 결과, 두 집단은 매우 다른 모니터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이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과정, 부정적인 정서, 자신의 개념을 위주로 단



정적인 평가 양상을 보인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감각 및 지각적인 과정, 긍정적인 정서, 자신이 하나의 경험자라는 사실에 기초해 묘사에 충실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객관적 지표에서 전문가 집단 위주로 된 분야에서 행정평가 지표와 현장 평가 지표의 결과가 가지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전문가 집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핏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모니터링 자체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개별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이 가지는 정보성이 기대보다 다소 약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은 개별 분야에서 매우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모니터링 자료의 분석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야별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편포가 분야별 비교 자체에 이미 두 집단의 편중된 분포가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변량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모니터링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분야별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을 고르게,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다수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분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이미 객관적 지표의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얼마나 신뢰로운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주기화하고 매년 각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와 분석이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판단된다.